

# 구미무을농악



農者天下之大本

구미무용농악





# 구미농악단, 한국민속예술제 국무총리상 수상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구미농악단. 구미시 제공

구미농악단(단장 박정철)이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 무형유산인 구미 무을농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구미농악단은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한 젊은 국악인들과 구미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개최된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는 전국 16개 시도와 이북 5도에서 지역 대표팀이 출전하는 대회로, 일반부 21개 단체, 1800여 명의 실력 있는 민속예술단체가 대항령상을 두고 치열한 경연을 벌였다.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 무을농악은 300년 전 영조시대 때 수다사(옛 연화사)에서 정재진 스님에 의해 발원했으며 1대 상쇠인 이군선부터 현재 8대 상쇠 박정철까지 뚜렷한 계보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드물게 군사굿, 농사굿, 불교설의 3대 설화를 다 가진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뚜렷하게 구분된 12마당의 진국(전쟁) 형태와 북의 박진감, 소고의 날렵함으로 군사적인 진법놀이를 재현해 영남지방 농악의 음악성과 가치성이 잘 표현돼 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성화봉송 초청공연과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에 출전해 농악부 장원을 수상했다.

박정철 단장 겸 예술감독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자 역사가 될 인재들이 수상한 상”이라며 “우수한 농악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보태겠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구미농악단,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서 '장원'



구미 농악단이 제42회 전주 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농악부분 장원을 수상했다.

<사진>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주시 일대에서 열린 대회에서 구미 농악단은 무을풍물의 전형적인 전투농악을 웅장하고 장쾌한 태평소와 북가락, 소고놀음으로 박진감 있게 공연해 농악부분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거머쥐었다. 구미 농악단은 지역 농악인 무을풍물을 계승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전공자들을 배출해 전국 예술대학에서 무을풍물 강의 등을 하는 구미시 대표 풍물단이다.

# 남원시립농악단 풍물 강습회





# 천안 흥타령춤축제 거리퍼레이드

